

## B. 제 2 그룹의 연구성과

테마 「신도·일본문화의 형성과 발전의 연구」

제 2 그룹은 오카다 쇼지(岡田莊司)교수를 그룹리더로, 신사사(神社史)를 중심으로 고대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의 전개를 조사·연구했다.

### a. 신사조사

각지의 신사조사가 오카다 쇼지(岡田莊司)교수를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카세 나오야(加瀬直弥), 코바야시 노리히코(小林宣彦), 그 외의 협력을 얻어서 실시되었다. 조사일과 조사지는 다음과 같다.

1. 조사일 : 2003 년 2 월 15 일~2 월 18 일

조사지 : 에히메현(愛媛県)의 무라야마신사(村山神社 : 우마군(宇摩郡)), 이소노신사 (伊曾乃神社 : 사이쥬시 (西条市)), 타키신사 (多伎神社 : 오치군(越智郡)), 그 외 합계 14 사.

2. 조사일 : 2003 년 8 월 19 일~8 월 22 일

조사지 : 나가노현(長野県)의 야시로스즈키미즈신사 (屋代須々岐水神社 : 치쿠마시(千曲市)), 마세신사 (馬背神社 : 우에다시 (上田市), 그 외.

3. 조사일 : 2003 년 11 월 27 일~30 일

조사지 : 아이치현(愛知県)의 아즈타신궁(熱田神宮 : 나고야시(名古屋市)), 마스미다신사 (真清田神社 : 이치노미야시 (一宮市), 미에현(三重県)의 죠노코시유적 (城之越遺跡 : 우에노시(上野市), 나라현(奈良県)의 오미와신사 (大神神社 : 사쿠라이시(桜井市), 이소노카미신궁 (石上神宮 : 텐리시(天理市), 그 외.

4. 조사일 : 2004 년 8 월 31 일~9 월 2 일

조사지 : 토야마현공문서관 (富山県公文書館), 토야마현(富山県)의 쿠니다신사 (櫛田神社 : 이미즈군(射水郡), 그 외.

5. 조사일 : 2005 년 11 월 4 일~5 일

조사지 : 와카야마현립키이풍토기(和歌山県立紀伊風土記)의 언덕 (와카야마시(和歌山市))

6. 조사일 : 2005 년 9 월 1 일~3 일

조사지 : 토야마현(富山県)의 타카오카시립박물관(高岡市立博物館), 그 외.

### b. 『신도·신사자료집성(「신사자료데이터베이스」)』의 작성

명치(明治)시대의 국학연구의 큰 성과로써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고지루이엔(古事類苑)』의 편찬방식을 모델로 하면서 「신사자료데이터베이스」를 작성했다. 대상으로 한 것은 ①『연희식(延喜式)』 신명장(神名帳)에 대사(大社)로써 기재되어 있는 신사. ②육국사(六国史) 종료지점(서기 887 년)에 신계(神階) 4 위 이상에 오른 신사. ③그 외, 자료상 특히 주목받는 신사, 약 500 사(식내대사(式内大社)·신계 4 위이상 등) 이다. 육국사 등, 10 세기초까지의 일을 기록한 신뢰할 수 있는 문헌으로부터 관계 기사를 추출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주로 조정과 신사의 관련을 분석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고대부터 헤이안(平安)초기에 걸친 조정의 신사정책을 검토한 결과, 8 세기말부터 9 세기전반에 걸쳐서, 신기(神祇)·신사에 관련된 제도상의 전환점이 보인다는 점, 그리고 조정이 신직에게 제사에 대한 인식을 높일려고 했던 점이 명확해졌다. 구체적으로는 신주(神主)나 국조(国造)의 전업화, 하후리베(祝部), 칸베(神戸)에 의한 신사수조(神社修造)의 책임의 명확화 등, 제사의 집행에 관계되는 특정의 사람들의 책임을 무겁게 하는 방침으로 바꿨다. 이세신궁(伊勢神宮)에 제주(祭主)가 성립된 것도 이 정책과 관련이 있다.

신사의 입지환경에 관한 조사에서는 에이메현(愛媛県), 나가노현(長野県), 토카이·킨키지방(東海·近畿地方), 토야마현(富山県) 서부에 있는 약 30 사, 그리고 나라·쇼소인(奈良·正倉院) 등에 소장되어 있는 『동대사개전도(東大寺開田圖)』(8 세기에 들어온 동대사영역을 나타내는 그림지도)에 해당된다고 보는 3 지역의 필드워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것이 명백해졌다. (1) 고대의 신사가 수전개발과 밀접한 장소에 있고, 동시에 수원(水源)과의 관련성도 보인다. (2)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진 충적평야와 안정적인 선상지와의 경계, 이른바 수전개발의 최전선에 해당되는 지역에 신사가 있다. 또 그것보다도 더욱더 안정된 장소, 구체적으로는 하안단구(河岸段丘) 위나 골짜기 사이에 소재하는 신사도 많다. (3) 식내사(式内社) 등과 같은 이른바 저명한 신사는 (2) 에서 나타난 후자의 케이스에 해당하는 것이 많다. 한편, 행정거점과 신사와의 위치관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근접하다고는 할 수 없으며, 행정거점과 신사와의 지리적관계를 행정과 신기신앙과의 관계를 논하는 재료로써 이용할 때에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신사자료데이터베이스」에 채록된 사료를 분석한 결과, 조정의 제사제도와, 천황의 신체에 대한 재앙과의 관련이 명확해졌다. 즉, 천황의 신체의 부조(不調)는 신의 재앙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하는 것과 함께 국가의 안정을 위협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나라(奈良)시대부터 헤이안(平安)시대전기에 걸쳐, 이 재앙을 미전에 막고, 그 원인을 특정짓기 위한 의례로써, 천황의 몸에 대해 점을 보고, 재앙이 왔을 때에 어떤 신이 재앙을 가지고 왔는가하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 임시의 점을 보게 되었다. 또 조정제사를 위임받은 신사, 즉 관사(官社)와 특히 정중한 제사를 행하는 명신(名神)의 수가 증가해서, 신에 대한 신의 위계(位階), 즉 신계(神階)를 모시는 예도 많다. 특히 정중한 제사인 16 사호베이(十六社奉幣)제도도 정비되게 되는데, 이것들은 신의 재앙에 대응하고, 그것과 더불어 정비되어진 것이다. 게다가, 신기(神祇)가 천황에게 재앙을 내린다는 구도는 천황과 신과의 사이에 개재하도록 제도화한 모든 지방의 국사·신직(国司·神職)에게 신사의 관리를 철저히하라는 임무를 초래하고, 신사의 수조(修造), 신사(神事)의 흥행(興行), 신직의 관리가 추진되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것에 의해서 천황, 국사·신직(国司·神職), 신기(神祇)로부터 이루어지는 「순환형제사기능·체계(循環型祭祀機能·体系)」를 구축했던 것이 밝혀졌다. 그리고, 9 세기 후반이후, 궁정내에 신기(神祇)우세의 풍조가 생겨나, 천황과 관련된 몇개의 제사를 이 순환기능의 중핵으로 고정시키고, 신기(神祇)의 재앙을 미전에 막기 위한 헤이안(平安)시대의 조정제사제도의 모든 제도의 골격이 확립된다.

### c. 국학자 데이터베이스 작성을 위한 문헌조사

이 작업은 사카모토 고레마루(阪本是丸)교수를 중심으로 후지타 히로마사(藤田大誠), 호시노 미즈시게(星野光樹), 그 외의 협력으로 실시되었다. 국학원대학 일본문화연구소편 『화학자총람(和学者総覧)』과 그 편집의 과정에서 작성된 「화학자(和学者)카드」기재의 출전 데이터를 기준으로, 지지(地誌)·인물지(人物誌)·모비(墓碑) 등의 조사자료를 추가했다. 또 각 인물의 생국(生国)·몰년(没年)·학통(学統)·저작(著作)·해설항목 데이터에 대해서 국문학연구자료관·국회도서관, 교토후종합자료관(京都府立総合資料館), 교토시역사자료관(京都市歴史資料館) 등에서 문헌조사를 실시했다. 이로 의해, 명치(明治)초년의 교토(京都)의 신사에 관한 행정문서를 몇점 복사할 수 있었다. 또 「카미가모(上賀茂)신사문서」, 「야나기하라가(柳原家)문서」등 근세의 신사문서도 복사했다. 이것들은 근세·근대의 교토에 있어서의 신사의 제사, 경제, 사가(社家)조직 등을 분석·검토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된다.

### d. 이즈모(出雲)지역의 신사 자료론적 연구

이 조사·연구는 미즈하시 타케시(三橋健)교수를 중심으로 COE 연구원인 아라이 다이스케(新井大祐),

오타 나오유키(太田直之), 마즈모토 히사시(松本久史), 그 외의 협력을 얻어 실시하였다. 조사는 2003년 11월 12일~15일, 2004년 11월 22일~26일, 2005년 11월 14일~18일, 2006년 2월 10일~12일, 2006년 8월 21일~25일, 5회 실시했다. 조사지는 시마네현(島根県)의 히카와군(簸川郡) 다이샤쵸(大社町)의 히노미사키신사(日御碕神社), 이즈모다이사(出雲大社), 미호신사(美保神社), 그 외이다.

이 조사에 의해, 히노미사키신사(日御碕神社)에 전해오는 고문서와 그 외의 자료를 다수 수집하고, 많은 새로운 자료(전수(伝授)·그림지도·서장(書狀)·증문류(証文類)등)를 찾아냈다. 17세기말부터 18세기초에 걸친 요시다(吉田)신도 관련 전수(伝授), 19세기전반의 시라카와가(白川家) 관련 전수가 발견되었다. 이것으로부터 히노미사키신사는 근세초두에는 남부신도와 요시다신도의 영향을 받았지만, 근세후기에 들어서면 시라카와류로 이행해 갔다고 여겨진다. 또 근세의 신장제(神葬祭)의 실태를 알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에마키류(絵巻類) 등이 발견되었다. 서장류(書狀類)의 대부분은 신사가 실시한 기도(祈禱)에 대한 막부(幕府)의 각료와 마즈에번주(松江藩主)로부터 온 예장(札狀)이다. 이것에 의해서 신사와 막부, 그리고 번과의 관계를 밝힐수 있는 단서를 얻을 수 있었다.

#### e. 유럽에 있는 호부(護符) 컬렉션 조사

이 조사는 치지와 이타루(千々和到)교수를 중심으로 오타 나오유키(太田直之), 모리 고로(森悟朗), 그 외의 협력을 얻어 실시되었다. 각 조사의 실시일과 조사지는 다음과 같다.

##### 1. 제 1 회 조사

조사일 : 2003년 9월 9일 15일~28일

조사지 : 프랑스·파리의 코레쥬·도·프랑스 일본학교등연구소, 영국·런던의 쉐브리치대학도서관

##### 2. 제 2 회 조사

조사일 : 2004년 9월 13일~19일

조사지 : 코레쥬·도·프랑스 일본학교등연구소, 스위스·쥬네브의 쥬네부시립민족박물관

##### 3. 제 3 회 조사

조사지 : 2005년 10월 30일~11월 6일

조사지 : 코레쥬·도·프랑스 일본학교등연구소, 쥬네부시립민족박물관

##### 4. 제 4 회 조사

조사일 : 2006년 9월 6일~9월 10일

조사지 : 코레쥬·도·프랑스 일본학교등연구소

본 조사에서는 해외에 존재하는 호부컬렉션 중에서, 파리의 코레쥬 도 프랑스에 기탁되어있는 벨날 프랑크 호부컬렉션을 모두 조사하고, 스위스의 쥬네브시립민족박물관 소장인 안드레·루로와=구랑호부컬렉션을 예비 조사했다. 베루나루 프랑크컬렉션은 유럽에 있는 일본학의 제 1 인자였던 프랑크씨가, 일본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수집한 것이다. 현재는 입수불가능한 것도 포함되어 있고, 외국인의 눈에 흥미깊은 호부를 수집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있다. 이 컬렉션은 총 1,000 점을 넘는 대규모라는 것을 알았다. 또 일본전국의 신사(社寺)호부가 모여져 있고, 수집된 호부는 회례(繪札)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도 확실해졌다.

루로와=구랑수집의 호부컬렉션은, 프랑스의 고고학·인류학자인 루로와 구랑이 1937년부터 39년에 걸쳐 수집한 것으로, 총 약 1,000 점에 달한다. 이 컬렉션은 특정의 시기에 수집된 것이라는 점에서 조사를 통해 호부의 시대적인 변화를 알고자 할 때에 유용하다.